

한국불교 계법 전승 첫 정립

지관 스님, 삼국시대부터 수계기록 400여 스님 행장 조사



한국불교계법전통 지관 스님 지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만5천원



해인사 천화계단에서 자운을사가 사용한 호계첩문.

1700년에 걸쳐 면면히 이어진 한국불교 교단의 계승전통을 사료에 근거해 집대성한 저술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근현대의 대표적 출사인 자운 스님(1911~1992)의 계맥을 이은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계법전승역사 정립의 원력을 담아 <한국불교계법전통>을 최근 펴냈다.

이 책에서 지관 스님은 불교가 성했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물론,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조차도 계법전통이 상속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불교 특유의 계승전통을 밝혀냈다.

6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초기 계맥과 남산종 종의 계맥을 다룬 부분과 수계전통의 역사를 조명한 부분, 그리고 한국불교의 계법전승을 고찰한 부분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백미는 단연 한국불교의 계법전승을 밝힌 대목이다.

지관 스님은 범어사와 만하(萬下)·대은파(大隱派)·백파파(白坡派) 등 한국계승의 대종을 이루는 주요 전승을 분석하는 한편, 200여 쪽에 걸쳐 수계기록이 남아있는 400여 스님의 행장을 조사해 계법을 주고받은 전승관계를 파악하고 계법수수전승도와 수수계법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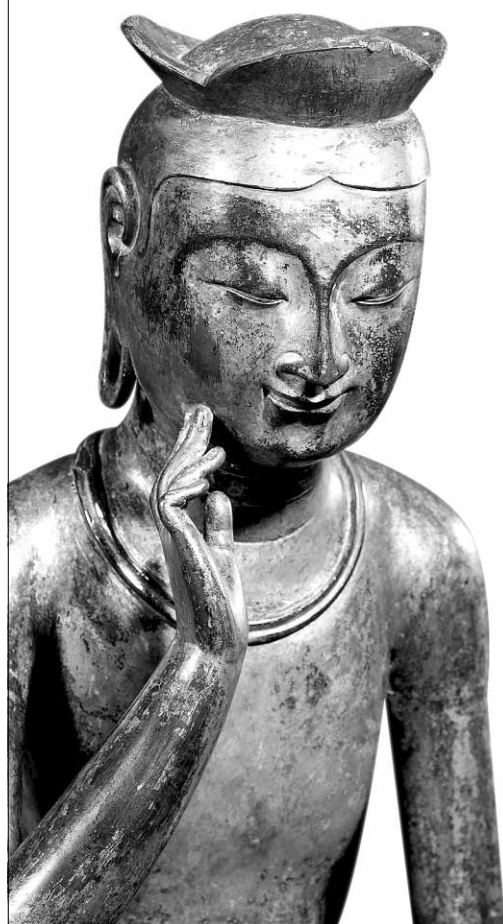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2·3대에 걸친 관계가 대부분을 이루는 가운데, 길게는 5·6대에 걸친 관계까지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불법이 성했던 고려시대보다도 꺾박발던 조선시대에 계법 전승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 남아있는 기록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고려시대 3대에 걸친 계법전승관계가 1건 발견된데 반해, 조선시대에 3대 10건을 비롯해 최장 6대의 전승관계가 파악돼 승가의 계법 수호의지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드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에 삽입된 통도사 금강계단, 송광사 금강계단, 해인사 감로계단·천화계단 등 전국각지계단에서 사용된 호계첩문 사진 16점도 과거 승단이 계법수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을 실감케 한다.

이 같은 계법의 전승은 계법의 종주국으로 인식되는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국가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어 보인다. 스리랑카의 경우 인종차별전쟁으로 교단이 황폐화돼 150여 년 전 미얀마로부터 계법을 이어왔고, 미얀마 또한 수계의식을 제대로 갖춰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법이 단절되는 폐불(閉佛)의 역사가 없었던 한국불교교단의 계법 전승이 더욱 우월하다는 것이 지관 스님의 주장이다.

지관 스님은 한국의 계법전승을 “구족계법을 근간으로 해 대승계법을 포섭하여 회통한 다중적이고 자주적인 계승”이라고 규정하며 “여러겹으로 이어진 한국불교계법의 자주적 전승을 기틀 삼아 사부대중의 특별한 발심과 정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인성 기자 info@buddhapia.com



반가사유상은 '인류의 영원한 자화상'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진은 삼국시대(7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되는 국보 제83호 금동연화관 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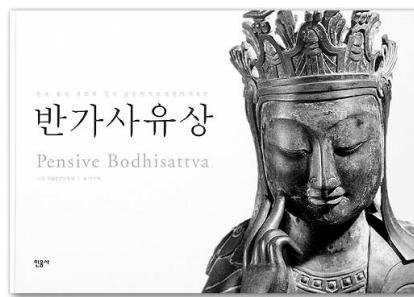
“한국 불상 최고의 걸작” ‘국립중앙박물관의 얼굴’, 이는 바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바쳐지는 찬사다.

국보 제78호 금동월월십삼산관사유상(金銅月輪三山冠半跏思惟像)과 국보 제83호 금동연화관반가사유상(金銅蓮華冠半跏思惟像).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단독전시실에 모셔진 두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으로 일가에 머금은 그윽한 미소, 살아 숨 쉬는 듯한 얼굴 표정, 상체와 하체의 완벽한 조화, 손과 발의 섬세하고도 미묘한 움직임 등으로 조형미와 예술미에 있어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 민음사가 펴낸 <반가사유상>은 가로 44cm, 세로 297cm의 과감한 판형에 금동반가사유상의 세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살살이 포착한 사진 50여 컷을 담았다. 특히 전신, 옆과 뒷 모습, 손, 발 등 각 부분을 여섯 각도로 나누어 찍

아! 반가사유상

A4용지 두배이상 판형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분과 전체 여섯 각도서 찍은 50여 컷 수록



반가사유상 강우방 지음 | 민음사 | 4만5천원

어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에 열린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을 통해 국제무대에 소개되기도 했다.

일반적인 불상이 정면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반가사유상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리고 오른쪽으로 앞으로 숙인 얼굴의 턱을 받치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는 이를 “항상 고뇌하면서 탐구하고 회의를 느끼는 인류의, 우리의, 나의 영원한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책 뒤편에 반가사유상 해설문 ‘인간의 영원한 자화상-사유상의 모습’을 실기도 한 강 교수는 “반가사유상은 구제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 모습을 구현했다”고 평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출현, '올해의 불서 10' 선정

'잊혀진 가람탐험' '간화선' 등 꼽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가 한 해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중 양서를 가려 뽑은 ‘올해의 불서 10’에 <간화선>(조계종출판사) <잊혀진 가람탐험>(여시어문) 등 10권의 불서가 선정됐다.

‘올해의 불서 10’은 불출협이 좋은 불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저자·출판사에 활력을 줌으로써 불교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행사다.

불출협은 200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출간된 도서 중 29개 출판사가 추천한 46종과 불출협 산하 불서임기소위원회가 추천한 도서를 대상으로 1차 후보도서 50종을 선정했다. 이 1차 후보도서 50종은 기자·독자·출판사 편집장·불교학자·법사 등 13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단의 추천을 거쳐 2차 후보도서 20종으로 축약했다.

최종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철교(前 동국대 출판부장) 김호성(동국대 교수) 이미령(동국대 역경위원장)은 이들 20종의 도서에 대해 창작성(30) 기획력 및 편집(25) 불교 대중화에 대한 공헌도(25) 문장 서술 및 구성력(25)을 기준으로 최종 10권을 가렸다.

‘올해의 불서 10’ 선정과정을 통해 짚어 본 올해 출판계의 가장 큰 흐름은 ‘현대인의 언어로 불교를 말하기’로 요약된다. 불출협 윤창화 부회장(민족사 대표)은 “불교의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전달하려는 책들이 많았으며, 불교문화 소개서와 수행 관련서 등도 많이 선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학술서적과 어린이·청소년 불서의 출간 저조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올해의 불서 10’에는 학술서(선문염송총화)와 어린이·청소년 불서(마음이 속속 크는 불교이야기129)를 의무 배정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다는 것이 윤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정위원이 너무 동국대 인사로 짜여진 점과, 저술·번역서 구분 부재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불출협은 선정된 도서에 대해 ‘올해의 불서 10’ 선정증 및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서점 부속용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올해의 불서 10 (가나다순)	
<간화선>	(불학연구사 지음, 조계종출판사)
<마음이 속속 크는 불교이야기129>	(안태석 글, 이재순 그림, 바다교실)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 스님 지음, 무한)
<불교미술기행>	(조병철 지음, 이가서)
<불교풍속고급기>	(박부영 지음, 은행나무)
<선문염송총화>	(월은 스님 역주, 동국역경원)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월호 스님 지음, 이치)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명석 지음, 동승동)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지음, 여시어문)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지음, 불광출판부)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반야심경' 이해의 길잡이



반야심경한 원측 지음 박인성 옮김 주민 | 1만5천원

“일반 불자들이 <반야심경>을 읽겠다는 것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반야심경>을 비롯한 모든 불교의 요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측 스님(613~696)이 쓴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 <반야심경한>을 우리말로 옮긴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말이다. 박 교수는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

는 불요의(不義) 경전인 <반야심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측 스님의 <반야심경한>을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야심경>을 공부하려면 먼저 5온(蘊 12처(處) 18계(界)) 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5온이 공하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온’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할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자들은 공(空)에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국대 대학원을 대상으로 <반야심경>을 강의하기도 한 박 교수는 “온과 처 등의 개념을 밝혀 놓은 <반야심경한>을 통해 학생들이 <반야심경>을 더 깊게 이해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속장경>을 저본으로 삼아 필사 과정에서 인용문을 적을 때 나타난 오류, 문맥상의 오류 등 26곳을 교정했다. 그리고 어려운 불교 용어를 현대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표문(表門)을 ‘지시해서 표현하는 문’으로, 가지(假智)를 ‘추리’로 번역한 것

을 비롯해 ‘진(證)’은 ‘표현하다’로, ‘즉(卽)’은 ‘합일하다’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불교전통에 기반을 둔 우리 불교계에서는 인도불교사상의 전통이 강한 <반야심경>은 그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박 교수는 “최초의 <반야심경> 해설서인 <반야심경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박 교수는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11월 30일부터 2006년 2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반야심경한> 무료강좌를 진행한다.

종무원·행자·공양주·모집

- 종무원**
컴퓨터, 운전, 행정사무를 두루 볼 수 있는자 (남·여 불문)
- 행자**
스님이 되고자 하는, 건강하고 불심 깊은 사람
- 공양주**
위 각 1~2명씩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주민등록증, 이력서 지참 내사하기 바람
불기 2549년 11월 29일

춘천시 서북면 지촌리 95
대한불교
조계종 **현지사**

알림

연 5개월째 연속 베스트셀러 (위를 유지하고 있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 판매는

- 현지사 033)243-1787,1795
- 부산 현지사(분원) 051)554-5150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어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떤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총판 운주사 11월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정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에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 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12개월간 자재만현스님의 매월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십시오!

현지경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